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요셉 성월 · 사순 제3주일
제34권 17호(가해) 2014·3·23

[묵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먼길에 지치고 갈증이 난 남자가 오히려 물을 주겠다고 하니 여인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인이 자신의 말씀을 깨닫기를 참고 기다린다.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을 놔두고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그런 물인정 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여인이 스스로 이해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그 여인과 나 자신을 비교해본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위주로, 내 편향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만 하는 나를 예수님은 끈기 있게 기다리고 계신다. 벌써 몇 번이나, 몇 십 번이나 야단을 쳤을 법한데도, 여전히 기다리신다.

사랑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삶에 무게에 지쳐, 그래서 쉬지 못하는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정말 그 사랑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영원한 샘을 막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빨리 그 샘을 찾기를 기다려 주신다.

이제 피상적이고 겉치레적인 신앙생활, 성당 문을 들어서면 신자이고 나하면 신자가 아닌 그런 신자생활에서 탈피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자.

마라톤 선수가 끝인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체력으로 부활이라는 끝인지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 미사(사순시기)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레지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성환, 김혜신 카타리나
특전미사	(생)김지수 보나 & 김지에 크리스티나, 강순복 요세피나 가정
주 일	(연)고준희 제임스, 이정웅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전시웅 요한, 이용식 베드로, 남진우, 홍정순 세실리아, 이남호 사라, 박동욱 요셉, 이명자 로사, 연옥영혼들
낮 미사	(생)김소연 프란체스카, 현시영 요셉, 장혜수 미카엘라,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김어거스틴 & 달린 가정, 조갑제 & 조소영 수산나, 박인수 프란치스코, 박인호 요한 & 박인혜 클라라, 정원철 안드레아 & 김범주 로사 가정, 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7,3-7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프리바에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2.5-8

복 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복 음 요한(John) 4,5-4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1	156	154
봉헌	409	267	265
성체	382	280	283
파견	목마른 사슴	151	153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다. 베이사이드의 성모 신심

(이는 1970년부터 미국 베이사이드의 베로니카 루에켄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련한 내용이다.)

- “성자와 전능하신 성부께서 너희에게 주신 갑옷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고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십자교상, 분도패, 그리고 스카폴라를 결코 몸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 (1992.10.6.).

1980년대 이 운동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혼란을 겪자 당시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는 베이사이드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브루클린 교구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의하였으며, 그 교구에게서 이 운동이 신빙성 없는 것임을 확인받았다. 당시 브루클린 교구 상서국 부국장 오토 델 갈시아 신부가 1981년 1월 30일자로 보낸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옵나 주교님, 주교님께서 문의하신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그 자료들을 동봉하여 드립니다. 성모 발현에 대해 저희 교구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브루클린 교구의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은 이른바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교님께서서는 저희 브루클린 교구의 공식적인 견해를 널리 공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는 같은 해 2월18일자 교구 공문을 통해 신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자들이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 유인물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 주교는 5년 후인 1986년 11월 3일 공문에서 다시 한 번 현혹되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한편 1986년 11월 4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교구장 존 무가베로 주교는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를 거쳐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존 무가베로 주교는 이른바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의 메시지와 여러 기적들은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에 관한 유인물 발행, 배포를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선언문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보고한 이른바 ‘발현들’에는 어떠한 신빙성도 부여될 수 없다. 둘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나 기타 관계 선전물들은 주교들과 공의회와 정당한 권위를 훼손시키며 신자들의 마음 속에 의혹을 심고 있다. 셋째, 계시나 영상, 기적 등에 관한 정보의 출판이나 유포는 적법한 교회 권위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넷째, 그리스도 신자들의 영적 안녕을 위하여 모든 신자들은 베이사이드 발현에 관련된 철야 기도회의 참가나 그 선전물의 유포를 삼가야 한다. <◆계속>

물 길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허하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 인사를 소개할 때 ‘전(前) 국회의원’ ‘전(前) 모 대학 학장’ 하는 식의 소개 법은 그 사람의 ‘현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오직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과거’만을 회상하게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찬양하느라 정작 지금의 삶에 소홀한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방 ‘시카르’라는 고을에 있는 우물은 쉽게 볼 수 있는 보통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천이백 년 전에 파놓은 우물로 오랜 전통뿐 아니라 대대로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쉬지 않고 채워주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만큼 많은 사연과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는 ‘위대한 우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곳을 매일 찾아오는 한 사람, 삶에 지치고 방황하는 한 여인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 이 마을 사람들이 천 년이 넘도록 마셔온 이 물이 지금 그대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풀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드라마 대사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 대사처럼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또 “안녕들 하십니까?”란 질문에 “난 안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아픔과 갈증의 현상에 때마다 ‘힐링 열풍’이 불면서 모 교수님은 ‘청춘은 당연히 아픈 것’이라 하고, 또 어떤 구도자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 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멘토링과 위로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아픔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앙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은 2천 년의 역사 동안 세월의 풍파를 거쳐 왔고, 그것의 깊이와 수량의 풍족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예수님이 던진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우물이 우리들의 영혼에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전통의 힘을 바탕으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신앙인으로서 자신 있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랑만 해왔지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오래된 신앙의 우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전통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물을 직접 길어 올려 목말라하는 세상을 적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물가에서 물 길는 자들입니다. 아마 세상이 목이 타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물 길는 수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겠습니다.”(요한 4,15 참조)

◆이명찬 신부 / 서울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십자가의 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틀이 아니라, 각 처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난 사건들의 신비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기념하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며, 그로써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사도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저녁미사(오후 7시30분)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가 참여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진행은 제단체가 맡습니다.

- 사순 제3주간 금요일(3월28일) : 요셉회
- 사순 제4주간 금요일(4월4일) : 양업회
- 사순 제5주간 금요일(4월11일) : 대건회
- 성 금요일(4월18일 오후 3시) : 본당 신부님

◆ 부활 합동 판공성사 : 4월9일(수)

- 참회예절 : 오후 7시 저녁미사 중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사순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미사전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17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사순 특강 II

- 강사 : 이동진 바오로 신부님(오순절 평화의 마을)
- 주제 : 꿈, Dream, Cum
- 두번째 강의 일시 : 오늘주일(23일) 오후 1시, 성전
- 2차헌금 : 23일 주일미사(특전미사포함)
오순절 평화의 마을 돕기

◆ 요셉회 장수 사진 촬영 연기

본당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와 날짜가 겹쳐 촬영일시를 부득이 연기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미정, 추후 발표합니다.

- 월례회 : 예정대로 3째주일에 합니다.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전례부 해설자 모임

- 일시 : 3월30(주일) 낮 11시미사후 곧
- 장소 : 회의실(점심제공)
- 문의 : 엄영숙 마리아 ☎(310)995-5662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월30(주일) 오후 1시30분 성전
- 대상 : 레지오 마리에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꾸리아단장 ☎(310)408-1443

◆ 평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본당신부님께서 부활 판공성사관계로 타성당으로 출장 가십니다. 평일 저녁미사중 4월1일(화), 4월2일(수), 4월8일(화), 4월10일(목) 저녁미사 시간이 아침 9시로 임시 변경되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

을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모집 및 전교기간 : 3월~4월30일
- 환영식 : 4월27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5월1일~12월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 12월21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서로 웃으면서 인사 합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23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콩나물비빔밥 \$3)
*주일학교(10학년 치킨케사디아)
- 3월30일(주일) : P.V. 2반(제육볶음과 상추쌈 \$3)
* 주일학교(9학년 햄&치즈 샌드위치)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영도	김관기	김교복	김병학	김 용	김원호
	김 은	김정희	김종문	김관구	노세미	박광자
성전헌금	박선희	박영희	반정희	배재일	서정진	성미선
	안민수	안재정	안태갑	엄세종	오신재	윤석구
	윤선희	윤 철	윤희동	이귀분	익 명	정혜영
	최기호	최득순	최원석	최진수	홍광선	
합계 : \$4,330						
주일미사 헌금 : \$3,030						
	김종문	김관구	노세미	박광자	박선희	안민수
	안태갑	엄세종	윤선희	윤희동	이일길	정혜영
	최기호	최득순	최원석	최진수	홍광선	
성물부 : \$500						
감사헌금 : \$1000(김은 안나, 익명)						
합계 : \$3,865						
주보광고후원 : \$250						
한남체인 도네이션 : \$27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야외14처) 스케줄

- 오늘주일(23일): 고등부 ● 3월30일: 5,6학년
- 4월6일: 유치부, 1, 2 학년

◆ 첫영성체반 모집

- 일시: 3월23일부터 8주간, 매주일 주일학교 수업시간중
- 대상: 3학년~12학년(오전10시30분~낮12시 2층교실)
- 자격: 부모중 한분이 가톨릭 신자로서 주일학교 등록학생
- 교리교사: 안젤라 조
- 문의: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교장 ☎(213)258-8665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루카복음(영어), 노트제공 *대상: 3학년~12학년
- 필사마감: 4월13일까지 담당 교리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중등부(7~8학년) 사순 피정중입니다.

-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일시: 3월21일(금)~23일(주일)에 돌아옵니다.
- 장소: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

◆ 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3월28일(금)~30일(주일) *장소: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www.oakglen.org)
- 대상: 9학년~12학년 *참가비: \$60
- 준비물: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교무주임 ☎(310)709-3343

◆ 한국학교 한글단어 경시대회

- 일시: 3월30(주일) 2층교실, 전체학생 참여
- 시상식: 4월6일(주일) 오전9시30분 학생미사중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310)464-7490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봉헌 및 봉헌강신미사

- 일시: 3월25일(화) 오후 7시
- 미사집전: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미주평의회 지도신부)
- 장소: LA 성 바실 한인천주교회 본당(637 S. Kingsley Dr.)
- 대상: 전신자 *준비물: 묵주, 성가책

◆ 제 73차 남가주 한인M.E. 첫 주말 신청받습니다.

- 일시: 5월2일(금)~4일(주일) 2박3일
- 장소: 샌퍼난도 소재 아시시 피정센터
- 수강비: 부부당 \$400(숙박/식사비 포함) *마감: 4월22일
- 접수: 백삼의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광자 엘리사벳 988-9925 3/15(주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3/8(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3/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15(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박상원 야고보 999-5808 3/15(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정현 베네딕다 995-6342 3/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3/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951-4710 3/11(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3/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0(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9(주일) 오후 5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213-700-6983 3/8(토)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시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482-9108 3/15(토)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판영 레오 818-1799 3/14(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88 3/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	--

다음주 단체모임

--	--

“일어나 비추어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는 8월 우리나라에 오신다는 공식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처음 떠오른 것은, 30년 전 5월 4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세례와 견진성사를 집전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뵈고, 그 파란 눈동자와 저의 검고 큰 눈이 마주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광주 관구 세 분 주교님들과 함께 일흔두 명의 예비자들에게 신앙의 첫 성사를 베풀면서, 복년의 3개 교구를 포함한 17개 교구를 상징하는 열일곱 명에 대해서는 교황님이 직접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저는 선배 방송인 대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교황님 앞에 서있었는데, 순간이었지만 맑고 깨끗한 그분의 눈은 사랑이 가득했고, 오직 저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시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마다 온전히 사랑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누구와 악수를 하면서도 눈길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는 교황 방문 10주년을, 2013년 리투아니아에서는 교황 방문 20주년 행사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103위 한국 순교복자들의 시성 30주년인 동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교회 사목 방문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복자 교황님은 당신께서 제정하신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부활 제2주일에 요한 23세 복자 교황님과 함께 성인으로 선포되십니다. 그분과 관련 있는 뜻깊은 일이나 기도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사가 겹친 올해 우리 한국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맞이해서 124위 순교자들의 시복식을 거행하고,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하며, 교황님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황님의 방한 일정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살아가는 ‘꽃동네’ 방문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노약자와 어린이들, 미혼모와 그 아이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채 가슴을 뜯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14)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번 교황님의 방한은 “일어나 비추어라.”를 주제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한 이 성경구절을 음미하면서 이 땅의 겨레를 비추는 하느님의 빛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언제나 누리고 싶습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이사 60,1-2)

◆최홍준 파비아노 / 방송작가

십자가

십자가에 대해 묻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어떨 땐 희생이라고 하고, 어떨 땐 무거운 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땐 구원, 어떨 땐 영광이라고 합니다. 헛갈립니다.

십자가는 원래 형벌 도구로, 로마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형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받으시면서 의미가 바뀝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생명의 하느님과 연결되었던 끈이 끊어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데, 이 단절된 끈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이어주었다고 교회는 고백합니다. 곧 단 한 번 자신을 봉헌물로 바침으로써 하느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점에서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며 또 다른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하는 짐을 말합니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사회 참여와 같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맡겨진 짐뿐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병고와 불행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십자가에 포함됩니다. 고난과 승리, 영광과 짐, 이 모든 것이 부활 사건 안에서 하나로 모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성호로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 우리 몸에 그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